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성당

2006년 8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2번(주 하느님 크시도다)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요한 5,1-9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 예비신자 돌보기와 새 가족 찾기 선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 본당 30주년의 내적인 준비로 새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합시다.(성기 읽기표 참조)
 - 광복기념 북가주지역 교회간 배구대회에 전 신자 참여 - 8월 12일(토)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46번(사랑의 송가)

MEMO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Mane Nobiscum Domine)

제2장 빛의 신비인 성체성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루가 24,27)

11.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체 신비의 첫째가는 측면, 하느님 백성의 신심 안에 늘 자리하여야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곧 성체성사는 빛의 신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며, 그리스도교 생활과 영성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 (요한 8,12)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주님의 변모와 부활 사건처럼 그분 생애의 여러 사건들에서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그분의 신적 영광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성체성사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탁월한 신앙의 신비(mysterium fidei)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완전히 감추어진 그 신비를 통하여 빛의 신비가 되시고, 그 신비 덕분에 신자들은 하느님의 생명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루블레프의 유명한 삼위일체 성화상은 적절한 통찰력으로 성체성사를 명백히 삼위일체 생명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12. 성체성사는 무엇보다도 빛입니다. 미사 때마다 두 ‘식탁’, 곧 말씀의 식탁과 빵의 식탁이 일치를 이루면서 하느님 말씀의 전례에 이어 성찬의 전례가 거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속성은 요한복음의 성찬례 이야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의 신비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시작하신 다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 (요한 6,55)라고 말씀하시며 그 신비의 성찬례적 차원을 밝혀 주셨습니다.

청중들 대부분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으며, 이에 베드로는 역사 전체에 걸쳐 다른 사도들과 교회의 믿음이 된 신앙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요한 6,68)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개입하시어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가 당신의 신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여 주십니다(루가 24,27 참조). 그분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불러 일으켜, 그들을 슬픔과 좌절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분과 함께 머무르려는 열망을 그들 안에 불러일으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루가 24,29 참조).

“건강해 지고 싶으냐?”

- 요한 5, 1~9 -

‘베짜타 연못’ -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이 연못을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실 자리로 선택하신다. 이 연못가는 믿지 않는 세계를 나타낸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병자요, 소경이며 절름발이요, 중풍병자인 것이다.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처지로 인해 예수의 관심을 받게 된 이 병자의 절망은 오늘날 여러 차원에서 깊은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을 대표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운명이나 삶의 의미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다. 하루하루를 그저 흘러보내고 있을 뿐,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의미에서 죽어 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신을 되살려 줄 구원자가 과연 있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저 관심사는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다.”는 것이다. 이는 하늘이 내리는 은총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일등에게만 혜택이 허락되는 이른바 ‘선착순논리’는 인간의 교약한 발명품이지 하늘(자연)의 길(법)이 아니다. 하느님 나라는 한 사람도 한 물건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나라다. 선착순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웃에게 경쟁심, 원망, 적의를 품게 마련이다.

“건강해 지고 싶으냐?”는 예수님 질문에 삼십팔 년이나 된 병자는

“예, 건강해 지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오히려,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물에 넣어주지 않는 사람들과

자기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

병든 사람이 병든 질서를 만들고 병든 질서가 다시 병든 사람을 낳는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예수님이 단칼에 끊어버리신다.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베짜타에서 베짜타를 안중에 두지 않는 그 단호한 외면(外面)에 새로운 질서가 창조된다.

<나눔> 참된 “생명”을 얻으려는 나의 열망은 어느 정도인가?

영혼을 밝히는 등불

데레사 수녀님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촌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나무 밑에서 아주 초라한 물골로
처량하게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보았다.
그 노인은 어찌나 지저분한지
마을 사람들도 모두 외면하고 있었다.

그런 노인에게 수녀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섰다,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집이 어디세요?"

노인은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았다.
데레사 수녀님은 여러 수녀와 함께 노인의 집을 찾았다.

집은 예상대로 무척 더러워서 거기서 살다간 병이 날 지경이었다.
노인에게 어렵사리 방청소 허락을 얻은 데레사 수녀님은
탁자 위에서 먼지가 보양게 쌓인 등을 발견했다.
걸레로 닦아 보니 등은 매우 아름다웠다.

수녀님은 그 등을 들고 노인을 불렀다.
"먼지가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등을 켜지 않으셨군요,
왜 이 등을 켜지 않나요?"

그러자 노인은
"누구를 위하여 등을 켜나요?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데레사 수녀님은 등을 탁자 위에 놓고 불을 붙였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등을 켜 주시겠어요?
매일 밤 저희가 찾아오겠습니다, 등불을 먼저 켜세요,
그래야 등불을 보고 이 집을 찾아옵니다."

그 다음부터 수녀는 날이 어둑해지면 꼭 노인의 집을 방문했다.
그 시각만 되면 노인의 집 창문에서
밝고 따뜻한 빛이 멀리까지 흘러나왔다.

데레사 수녀님이 마을을 떠난 한참 뒤
노인이 편지 한 통을 보내 왔다,
"수녀님께 꼭 전해 주세요,
수녀님이 내 가슴에 켜 주신 등불은
아직도 활활 잘 타고 있다는 것을……"

